

[For immediate release]



정환영: Life and Karma

9월 25일 -10월 21일, 2020

Opening: 9월 25일, 12-6pm

이미지: P252_W03_2020_LE, Edition of 10 +2AP, 40 x 53"

뉴욕, 뉴욕- 스페이스 776는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정환영 사진 작가의 '라이프 앤 카르마(Life and Karma)'를 선보인다.

서울을 베이스로 활동하는 정환영 작가는 스페이스 776 뉴욕과의 첫 전시에서 2005년부터 지속/발전 시켜오고 있는 플랜트 시리즈를 소개한다. 이 시리즈의 새 작업들은 인간과 식물 사이의 자연 환경에서 본능적 반응을 포착하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정환영 작가는 사진을 이용하여 삶과 업보를 주제로 이를 표현하며, 흰색과 붉은색 실로 수평과 수직을 연결하는 퀴팅과 유사한 기법을 이용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조각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사진을 단수 조각으로 변형시킨다.

"오랫동안 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관찰해 왔다. 어느 날, 나는 그 속에서 신비롭지만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는 그들의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매 순간 볼 수 있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의 본능 같았다."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흰색 실은 삶을 상징하고, 빨간색 실은 업보, 운명, 기회를 상징한다. 업보에 관한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일생 동안 수많은 기회와 운명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마다 각각 다른 밝기와 노출을 통해 순간마다 느끼는 다른 무게와 삶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

정환영 (Andy H. Jung)

정환영은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2010년 사진학과를 졸업후 2012년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사진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라이카 어워드 코리아 2019의 수상자이며 2020년 니콘 이미징 한국대사로 임명되었다. 주요 전시로는 2020년 보름산 미술관, 2015년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 2013년 금산갤러리 등이 있고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 유엔 본사가 있다.

For all inquiries, please contact at info@space776.com